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첫 대표 누가 될까

車 산업 이해도 높고 노사민정 아우를 인물이 맡아야
이번주내 투자금 입금 완료 이달중 합작법인 출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인 ‘광주시·현대차’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할 투자금이 이번 주 내로 입금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설법인 대표이사를 어떤 인물이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닌 광주시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광주시 자동차공장’이라는 점에서 초대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전문성) 뿐만 아니라, 시민 이익을 대변하며 광주형일자리 사업 취지를 구현해낼 경영 철학(공익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법인 설립을 위한) 계좌를 열었고,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입금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중 투자금 입금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투자협약을 맺은 34개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입금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지난 5일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브리핑에서 밝

힌 것처럼 8월 합작법인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 시기가 올 상반기에서 8월로 다소 늦춰졌으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이 금명간 확보돼, 주주간 협약과 발기인 총회, 법인 설립 등기관 남겨졌다.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는 초대 법인장(대표이사)을 어떤 인물이 맡느냐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잘 이해하는 현대차 출신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며 사업체를 이끌 고위관료 출신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아우를 지역사회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설된 합작법인의 1대 주주가 광주시이고, 우호지분도 2대 주주인 현대차를 압도한다는 광주시 설명대로라면,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결정은 주식회사 특성상 광주시 의사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2대 주주인현대 상품 개발

과 판매를 현대차가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역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대차 측 의견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합작법인이 광주 빛그린산단에 짓는 자동차공장은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닌 ‘광주시 자동차공장’으로 신설법인 대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사업이 연착륙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정철계 말해 회사 문을 닫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투입상품(자동차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차량)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현대차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투입 상품과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형일자리자동차공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신입 대표이사가 노사민정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금은 낮추고, 일자리는 늘리고,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는 주거·복지·교육 등 사회적 복지로 메운다’는 취지의 광주형일자리 사업 취지에서 보듯, 신입 대

표이사가 임금 차이를 메울 사회적 복지를 구체화시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합작법인 대표이사 선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1대 주주인 광주시가 혼자 결정하기 보단 2대 주주이자 사업 파트너인 현대차 의견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11월 공장 착공, 2021년 완공·양산체제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광주시와 현대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3곳, 기업 29곳 등이 합작법인에 2300여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 현대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했다. 총 5754억원의 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섬 발전 가능성 제시하고 평화 메시지 담고
전남도, 8일~10일 삼학도 일원 ‘섬의 날’ 행사

섬 민속경연대회 등 풍성
특산물 판매·체험행사도

전남도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섬의 날을 8월 8일로 정한 것은 8월의 섬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고, 숫자 8을 옆으로 누우면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8=∞, 무한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섬의 날 행사는 섬과 육지의 만남을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섬과 사람을 미래로 이어주는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평화의 섬 목포 삼학도에서 개최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3일간 열리는 섬의 날 행사는 국가 기념행사는 물론 섬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섬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주무대에서는 8월 8일에는 300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 기념행사와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풍어제, 출어제 등 섬 전통 민속문화를 겨루는 섬 민속경연대회가 전국 12개 팀이 참가한다. 섬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00여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그림대회도 열린다. 8월 9일에는 전국어린이 동요대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댄스대회, 어린이 인형극, 각 나라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마당공연인 프레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10일에는 플라잉워터쇼, 노래자랑대회, 폼바페스티벌 등인 진행될 예정이다.

하공연이 있고, 9일에는 모모랜드, 더보이즈, 프로미스나인, 다비치 등이, 10일에는 청하, 우주소녀, 틴탑, 산들, 다이아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K-pop콘서트도 열린다.

전시관에서는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담고 변화된 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과 섬이 있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총 53개 기관들이 섬 정책을 소개하고 섬 관광과 특산물 등을 알리는 홍보관을 3일 동안 운영한다. 완도 전복과 진도 돌미역, 제주 뽕 등 섬 특산품을 재료로 한 오세득 스타 셰프 푸드쇼, 버스킹, 섬 특산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섬 특산물 경매도 진행된다.

체험 및 부대행사는 진도, 울릉도 등 섬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섬 토속음식과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너섬나섬 페스티벌, 목포 근대역사문화와 서남해안권 박물관 체험, 휴가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인 키즈 드림 아일랜드와 어린이 해양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며, 요트, 카누, 카약 체험도 할 수 있다.

섬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8월 9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전국의 섬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섬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술대회와 ‘섬 주민, 삶의 소리, 섬에서 이렇게 살았다’란 주제로 섬 주민간 교류와 주민들의 삶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섬 주민 대화’를 개최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섬을 알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를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 섬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여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 8일에는 유명가수 박상민, 지원이 등이 출연하는 축

“보조금으로 복지시설 대표
퇴직금 적립 부적절 감사 취소”
광주시 감사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보조금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앞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억2947만원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복지시설의 대표자들은 광주시가 퇴직적립금 지원 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 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재심 결과 국가기관에는 명확한 환급 규정이 있으나, 자치단체에는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조치 사항을 취소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시민모임’ 찾은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강은미 부대표 등 정의당 당직자들이 6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스터즈수영대회 조직위, 시설물 이동 등 태풍 대책 마련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나섰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 이동과 안전 조치에 나섰다.

조직위는 우선 국제방송센터 부지 몽골텐트 6동을 철거하고 각 경기장 선수 이동 동선에 있는 몽골텐트 51동의 간막이도 제거하기로 했다. 선수와 관람객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조성한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도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휴게 파라솔과 배너 등 각종 강풍 취약 시설을 이동 조치한다.

태풍 ‘프란시스코’에 근접해 있는 여수 오픈워터수영 경기장은 출발대(해상폰툰)에 4개의 닻을 추가 설치하고 관람석 가림막과 각종 환경장식물을 강풍의 세기에 따라 철거를 결정한다.

쉽터·생수 공급 등 폭염 총력

전남도는 6일 “8월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해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목포시·신안군, 소방서, 경찰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은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개최되는데다, 불꽃놀이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다. 관람객도 3000여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날 행사장 시설장비, 소방·전기·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케이팝(k-pop) 콘서트가 열리는 주무대와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임채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페스티벌을 즐기도록 행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 쉼터와 생수 공급 등 폭염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